

**기업 — 전선업체**

**"장사 잘했습니다"**

전선(電線)업체들은 지난 해 영업이익이 최고 111%까지 늘어나는 등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광케이블과 일반전선의 매출이 늘어 큰 이익을 낸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실적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됐다.

업계 1위인 LG전선은 매출이 전년보다 1% 증가했으나 마진율이 높은 광케이블 수출이 잘 돼 영업이익은 32% 늘었다. 하반기에는 광케이블의 수출이 줄었지만 초고압전력선 매출이 늘어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 LG전선은 광케이블 초고압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데다 미국 유럽 등에 많은 고정거래처가 있어 국내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펌프사업 매각에 이어 공조기 트랙터 등 기계사업과 일반통신선 피복선 등 수익성이 낮은 전선부문을 정리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은 일반전선 원재료인 나동선부터 광케이블까지 생산하는 업계 2위 업체로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4%, 120% 늘었다. 광케이블 중간원료인 석영봉을 직접 생산해 다른 업체보다 원가경쟁력이 강하지만 중국투자법인의 영업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

희성전선은 전력선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전력선 및 절연전선 전문업체로 다양한 거래처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광케이블과 광섬유 일관생산체제를 갖춰 생산능력이 2배로 늘어났다.

선박용 전선과 랜(LAN)케이블을 전문 생산하는 극동전선은 세계 선박용 전선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 작년 조선경기 활황으로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11% 늘었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조선경기가 앞으로 3년 가량 좋을 것으로 보여 매출과 수익이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

김태홍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침체로 줄어든 미국 유럽 등 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설치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세계 광케이블 설치율이 50% 수준이고 한국전력 KT(옛 한국통신) 등 국내기업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어서 전선업체들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LG산전(주)**

전력기기, 터키 시장에 국내업체 처음으로 진출

LG산전(대표 : 金正萬 www.lgis.co.kr) 전력기기 제품이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2억불 규모인

터키(Turkey) 시장에 진출한다.

LG산전은 터키 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전자접촉기, 배선용차단기 등 전력기기 제품에 대해 터키 국가표준 규격인 TSI (Turkish Standards Institu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TSI 인증은 터키 현지 진출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마크로서 실제 시험은 TSI 관계자의 입회하에 청주에 있는 LG산전 전력시험기술센터에서 IEC 규격(국제전기규격)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LG산전 전력기기 제품이 신뢰성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음은 물론 LG산전이 터키 및 주변시장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LG산전은 진출 첫 해인 올해 터키 시장에서 100만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5년내 5%(1천만불)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여, 선진기업인 독일의 지멘스(SIEMENS)社, 프랑스의 슈나이더(Schneider)社 및 현지업체인 터키의 페더럴(Federal)社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칠 계획이다.

수출비중 확대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LG산전은 중국의 제2내수화 전략과 중점 수출시장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터키 시장 진출은 미래중점 시장진출 전략의 일

환이다.

LG산전은 지난 해 20%이던 수출 비중을 올해 23%로 확대하고 2006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컨테이너형 발전소 첫 수주**

독자모델 「힘센엔진」 상품화 길 넓혀 이동설치 간편, 경제성 높아 수요 늘 듯

현대중공업(대표:崔吉善)이 국내 최초로 독자개발한 엔진(모델명 : 현대힘센 HYUNDAI HIMSEN)을 핵심 구성품으로 하는 컨테이너형 미니발전소(Packaged Power Station)를 처음 수주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에퀴스 (EQUIS = Energia Quisqueya. S.A.)社로부터 수주한 이 제품은 현대중공업이 올해 개발 완료한 중속 디젤엔진 「\*현대힘센」 과 발전기, 기타 발전용 기자재를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속에 넣은 소규모 발전소 형태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작되는 것이다.

이 미니발전소는 발전용량이 1천 kW로 3,000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필요에 따라 견인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 자가발전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적합한 발전설비이다.

현대중공업은 고유모델인 힘센엔진을 개발하면서, 5만톤급 이상 선박의

보조엔진(발전용)이나 소형선박의 주기관, 또는 컨테이너형 발전소용으로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수주 활동에 들어가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EGE HAINA, 온두라스의 YANG TEX 등 상당수의 업체로부터 20,000kW 상당의 발주를 받아둔 상태이다.

이러한 방식의 발전설비는 중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발전·송전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건설현장이나 호텔, 공장 등의 소규모발전, 가뭄이 잦아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지역, 건우기가 뚜렷한 국가들의 상시발전용으로 각광받고 있어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 및 전력사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컨테이너형 발전설비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 없어 가격이 저렴한 데다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또한 중유(重油)를 사용할 수 있어, 연료효율이 매우 높고 운영비가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컨테이너형 발전소의 주기관으로 채택해온 고속엔진의 수명이 5년 정도인데 비해 중속 엔진인 「현대힘센」 은 수명이 20년 이상이며 경제성 측면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98년, 20만 킬로와트급(50,000kW×4) 세계최대 인도 GMR 발전소를 비롯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등에서

5만~7만마력 급에 해당하는 대형 디젤발전소 공사를 다수 수행해 온 현대중공업은, 핵심설비로 디젤엔진이 채택되었다.

※ 출시한 독자모델 엔진 「힘센」 은 720~1,000RPM의 중속엔진이다. 출력이 600~2,610kW로 소형 선박의 추진기관이나 5만톤급 이상 선박의 발전용 보조엔진으로 쓰이는 4행정기관의 '중속'이다.

디젤엔진은 크게 대형엔진과 중형엔진, 또는 중·고속 엔진과 저속엔진으로 나뉘어진다. 엔진의 출력이 커질수록 분당 회전수, 즉 RPM은 낮아지는데 300RPM 이하는 '저속엔진' 300~1,000RPM은 '중속엔진' 1,000RPM 이상은 '고속엔진'으로 분류한다.

**두산중공업(주)**

**기능장 시험에 52명 합격**

전국 합격자의 10%, 국내 최대 기능장 보유

두산중공업(www.doosanheavy.com) 직원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각 분야별 국내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능장 시험에서 52명이나 대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말 발표된 제 30회 기능장 시험 합격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전국 합격자 541명 중 약 10%인 52명의 직원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한 회사에서 50명이 넘는 기능장 합격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분야별로는 기계가공 기능장이 28명, 용접기능장 19명, 판금제관 기능장 3명, 전자기기 기능장과 금속재료 기능장이 각 1명이다.

특히 박현영 반장(원자력공장)은 이번 시험에서 판금제관기능장에 합격하여 기존의 용접기능장과 더불어 2개의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국내 최다 기술사(111명)와 기능장(285명) 보유 회사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에게 믿음 주는 한국전력거래소' 비전 선포

한 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백영기)는 '비전선포식'을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31일 한전 별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거래소의 향후 좌표를 설정, 발표했다.

전력거래소측은 이 비전이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변화의 선도자로서 효율적인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통해 양질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 국민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전력거래소는 이와 관련 "전력산업

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신뢰 받는 전력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영기 이사장은 종무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전력거래소 개장 이래 임직원 모두는 원활한 전력계통과 합리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혼연일체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격려하며 "도매경쟁시장 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약식으로 치른 이날 선포식에서 이명희 과장(설계처) 등 14명의 직원에게 자체 포상했다.

### 한국전기연구원

금년에는 최고의 성과 창출·인간미 넘치는 직장 만들기엔 전력

한 국전기연구원은 지난 1월 2일 오전 연구원 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도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권영한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훌륭한 성과를 많이 거두어, 과거에는 연구소의 대외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이제 어디를 가보아도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연구원 가족 모두를

치하였다.

권영한 원장은 이날 △양적 성장에서 질적내실화로 전환 △연구 경쟁력의 제고 기반강화 등을 금년도 중점경영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지속적인 추진 ▲장기 안정적 사업발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구조 개선과 기본연구 내실화 ▲6T와의 융합기술 적극적 추진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력채용방법 개선 ▲보직자와 과제책임자의 Leardership 향상과 「그룹 1세계최고기술」 제언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국제적 시야 견지 ▲한전 구조개편 후를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제도개선 계속 ▲유연성 있는 조직 변화 ▲근무환경 크게 향상 ▲연구성과 대외홍보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직원, 간부, 노사, 산학연간 대화의 장 활성화 ▲직장을 아끼고 동료배려하는 것등을 실천방안으로 밝혔다.

한편, 권영한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어 온 한국전기연구원은 이제 어느 연구기관, 어느 회사보다 더 비전이 있고 안정되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직장이라"고 말하고 "올해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미 있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